郡 '담양의 작은 유럽' 살리기 재협상 할듯

메타프로방스 사업 무효 판결

1단계 전통놀이 마당·3단계 농어촌테마공원 등
임시 개장에도 200만 방문 전국 명소 자리매김
펜션·호텔·상가 등 갖춘 2단계 사업 차질 불가피

메타프로방스 사업 지구는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로수길로 꼽히는 담양 메타세쿼이아길 주변이다. '유럽풍'의 음식점·커피숍·펜션·호텔 등을 조성해 관광객을 끌어모은다는 게 목표다. 실제 임시 개장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200만명의 관광객들이 발걸음을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업의 계획승인 과정이 잘못됐다고 판결했다. 공익을 내세워 사실상 수익 사업을 한 지자체의 행정에 제동을 건 것이다. 결국 행정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고, 공사 중지 사태는 지속됐다. 더 큰 문제는 담양군이 또 다른 소송에 휘말릴 것으로 우려된다는 것이다.

◇**첫 단추 잘못 꿰었다**=이 소송의 주요 쟁점은 ▲국토계획법상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위반해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을 한 경우, 그 지정처분 하자를 중대·명백한 하자로 볼 수 있는지 ▲국토계획법상 사업시행기간 내 부지 매각 및 제3자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실시계획이 허용되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이 당연 무효인 이상, 이에 기초한 후행처분인 이 사건 실시계획 인가처분도 무효"라고 판단했다. 또 사업시행기간 중에 제3자에게 매각하고 제3자로 하여금 해당시설을 설치하도록한 내용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인가처분한 것은 중대한 하자다고 봤다.

즉, 이번 판결의 의의는 민간사업자가 사업시행기간 중에 사업 대상인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내용의 실시계획은 국토계획법령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분명히 했다는데 있다.

◇**어떻게 되나**=이번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메타프로방스 사업은 중단되게 됐다. 관광호텔 건설은 한참 미뤄지게 됐고, 영업 중인 주변 상가들의 피해는 불가피하게 됐다.

인허가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담양군 행정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고, 상가를 분양받은 이들의 손해배상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에서 승소한 원고들의 또 다른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제 수용된 토지반환 요구 소송과 건물 철거 요구 소송 등이다.

토지를 수용당한 주민들이 재산권을 주장하며 토지 반환을 요구하게 되면 군은 사실상 재협상에 들어가야 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소유주들은 철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담양군은 "공사가 거의 끝난 만큼 재산관계인들의 법적 권한도 존중해야 한다. 판결문을 살펴서 흠결이 있는 부분을 바로잡은 뒤 재인가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메타프로방스 조성 사업**=담양군이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일대 21만3000㎡에 유원지를 조성하는 '메타세쿼이아 전통놀이마당 유원지 조성 사업' 중 2단계 사업이다.

담양군이 직접 시행한 1단계 전통놀이마당 조성 사업은 82%, 3단계 농어촌테마공원 조성 사업은 100% 완공했다.

문제가 된 것은 2단계인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이다. 민간자본 등 587억원을 들여 담양읍 학동리 메타세쿼이아길 인접지 13만5000㎡에 펜션·상가·호텔 등을 밀집시킨 유원지 시설이다. 2014년 펜션·상가가 개장해 영업 중이며, 관광호텔 등을 짓던 중 소송으로 중단됐다. 현재 공정률은 80%에 이르고 있다. 이 곳은 '담양의 작은 유럽'으로 알려지면서 전국 명소로 자리잡았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64년만에…주한미군 평택 시대 개막

미 8군사령부 청사 개관

주한미군의 주축이자 상징인 미 8군사령부가 64년 만에 주둔지를 서울 용산에서 경기 평택으로 이전하는 작업을 마무리하고 11일 새 청사 개관식을 했다.

이날 행사는 미 8군 군악대 전주곡 연주를 시작으로 애국과와 미국가 제창, 미 8군 군목 기도, 월튼 워커 장군 동상 제막식과 헌화식, 예포 발사, 지휘소 개관식, 미 8군가 및 미 육군가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토머스 밴달 주한 미 8군사령관(중장), 태미 스미스 미8군 부사령관(소장), 리처드 메리트 미8군 주임원사를 비롯해 미군 측 300여명이 참석했다. 또 이상철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서주석 국방부 차관, 임호영 연합사 부사령관(대장), 엄기학 제3야전군사령관(대장), 김리진 워커대장 추모기념사업회장, '명예 미 8군사령관'이자 6·25 전쟁영웅인 백선엽 예비역 장군 등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미 8군사령부는 이날 신청사 개관식을 하며 평택 험프리스 기지를 국내 언론에 공개했다.

밴달 사령관은 환영사에서 "총 107억 달러가 투입된 이 건설 프로젝트(평택기지 건설 사업)는 험프리스 기지의 규모를 확장해 미 국방부 해외 육군 기지들 중 최대 규모의 기지로 거듭나게 했다"며 "이 시설들이야말로 미 국방부의 해외 시설들 중 단연 최고"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 여름휴가 더 쓴다

7월말께 경남 양산 사저로 7~8일간
'연차 휴가' 독려 차원서 2~3일 늘려

문재인 대통령이 7말8초(7월말이나 8월초)에 경남 양산 사저로 여름 휴가를 떠날 전망이다.

11일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휴가는 7월말이나 8월초가 될 것 같다"며 "휴가 기간은 7~8일 정도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는 5일 정도였던 역대 대통령들의 여름 휴가에 비해 2~3일 더 많은 것으로, 문 대통령이 그동안 연차 휴가 사용을 독려했던 배경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미국으로 가는 대통령 전용기에서 "연차 휴가를 다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힌데 이어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장관들이 솔선수범하고 공무원들도 연차를 다 사용할 수 있게 분위기를 조성하고 독려해달라"고 지시했다. 이는 공직사회부터 연차휴가 소진을 실천, 노동자의 쉴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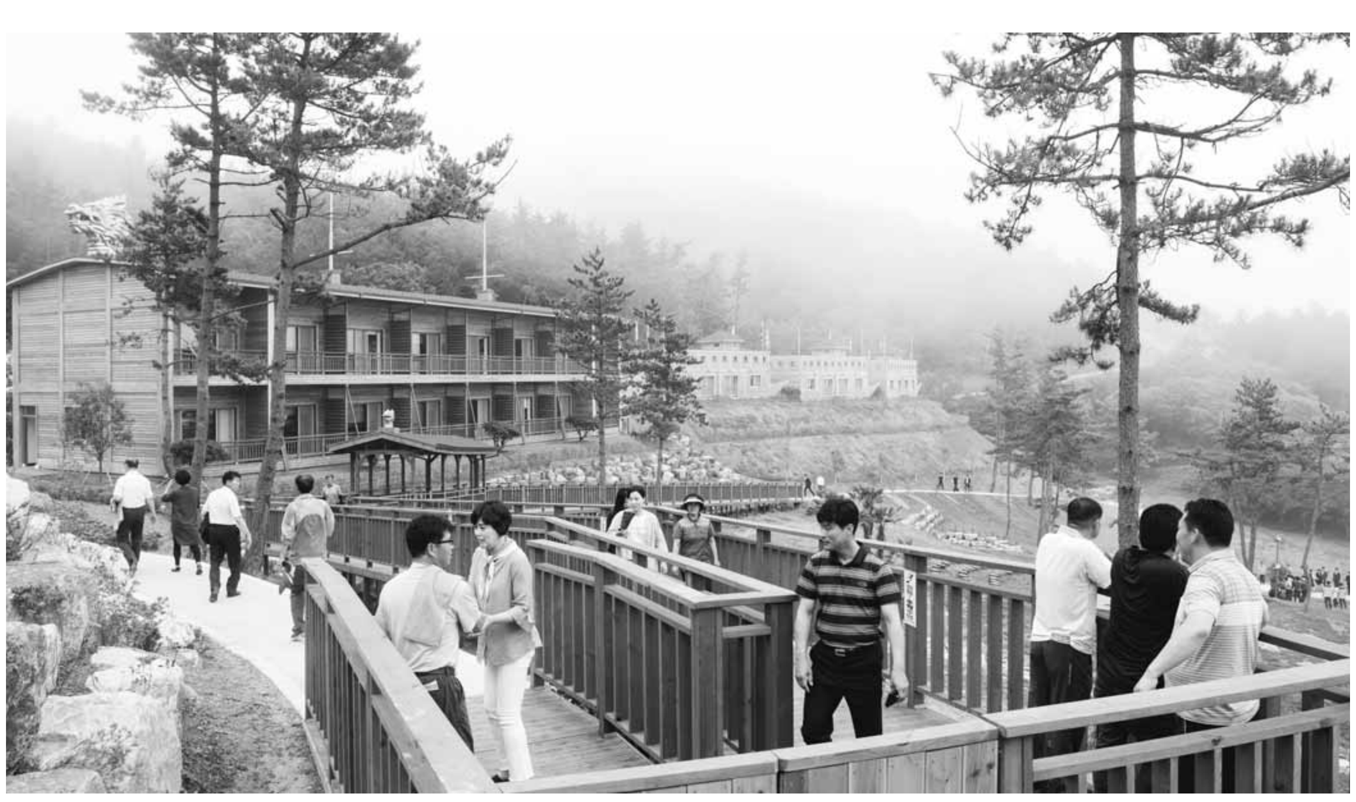
이날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지금 중국 관광객이 급감했는데 이번 여름은 해외여행 대신 국내에서, 농어촌에서 휴가를 보내자는 대국민 캠페인을 한번 벌여보는 게 좋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는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어촌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국내 관광 활성화로 이어지면서 내수를 살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한데 따른 것으로, 문 대통령이 아이디어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임동욱기자 tuim@

거북선 휴양관·판옥선 집…진도 국립자연휴양림 '신선한' 개장

천편일률 휴양림 탈피
남도소리 체험관 등
지역 역사·문화 입혀



11일 진도군 임회면에 개장한 국립진도자연휴양림을 찾은 관광객들이 산책을 하고 있다. 진도자연휴양림은 다도해해상국립공원과 인접해 있으며 신비의 바닷길축제, 명량대첩 축제 등 역사, 문화, 예술의 체험관광 휴양지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불멸의 명량대첩'과 '진도아리랑'을 담은 자연휴양림이 진도에 문을 열었다. 숲과 목재펜션 등 천편일률 자연휴양림을 벗고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입힌 첫 번째 휴양림이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산림청이 진도군 임회면 굴포리에 조성한 '국립진도자연휴양림' 개장식을 이날 개최하고, 오는 14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개장식에는 신원섭 산림청장, 김갑섭 전남지사 권한대행, 이동진 진도군수,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국립진도자연휴양림은 지난 2011년 전남도와 진도군이 국유림 가운데 산림과 바다가 어우러진 다도해 휴양림 최적지로 산림청에 건의해 선정됐다. 2013년부터 사업비 86억원을 들여 만든 42번째 국립 자연휴양림이다.

산림청은 다도해 자연경관뿐만 아니라 진도가 '명량대첩 승전지'이자 '진도 아리랑의 근원지'로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명소가 많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진도휴양림은 거북선 모양의 산림문화휴양관(1동 14실), 조선 수군의 전투선인 판옥선 모양의 숲 속의 집(8동 8실)을 포함해 남도소리 체험관(1동), 방문자 안내센터, 잔디광장, 산책로, 다목적 운동장 등을 갖췄다.

조선시대 무과시험을 재현한 격구·활쏘기 등 전통놀이, 남도소리 체험, 명량대첩을 테마로 한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약은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누리집(www.huyang.go.kr)에서 할 수 있다.

김갑섭 전남지사 권한대행은 "휴양림 개장으로 보배 섬 진도에 보배가 하나 더 늘었다"며 "아름다운 다도해를 감상하면서 힐링하는 전국적 명소로 발돋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에는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유아숲 체험원 등 60곳의 산림휴양·교육 시설이 있다. 지난해 모두 82만명 이용객이 방문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신안·완도·영광 섬주민 3백명 청와대 간다

다음주 김정숙 여사 초청으로

신안·완도·영광지역 섬 주민 300여명이 청와대를 방문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초청해서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에 따르면 전남지역 섬 주민 300여명이 김 여사의 초청을 받아 다음주 중 청와대를 찾는다. 신안군 자은도·암태도·팔금도·안좌도, 완도군 노화도·보길도·소안도, 영광군 낙월도 등 8개 섬과 완도읍 주민들이다.

이와 관련, 지난달 청와대는 민주당 도당에 "김정숙 여사를 만나고 청와대를 둘러보길 희망하는 섬 주민들을 파악해달라"고 요청했었다. 다만 청와대 측은 공직선거법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어 차량이나 식사 등 제공은 어렵다고 민주당 도당을 통해 섬 주민들에게 설명했다. 대신 주민들이 청와대 관람을 오면 법적인 문제가 없을 정도의 간단한 다과와 기념품을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욱기자 jwpark@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담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태광공인중개사

상가건물
1. 쌍촌동 5층 상가건물 대200㎡ 매11.8억원(보9,500 월500 포함)
2. 월곡동 4층 상가건물 대471㎡ 매14.8억원(보1.5억 월780 포함)
3. 용봉동 4층 상가건물 대468㎡ 매11.8억원(보1.2억 월650 포함)
4. 신가동 3층 상가건물 대273㎡ 매9.3억원(보8,000 월450 포함)
5. 용봉동 3층 대로변상가 대1,100㎡ 매28억(840만/평, 융22억 포함)
6. 노대동 3층 상가건물 대831㎡ 매26억원(보1.5억 월1,222 포함)
7. 일곡동 6층 상가건물 대330㎡ 매22억원(보2.4억 월900 포함)
8. 서석동 4층 상가건물 대120㎡ 매4.8억원(보5,000 월180 포함)

상가주택
1. 산정동 3층 상가주택 대180㎡ 매8억원(보6,000 월370 포함)
2. 일곡동 3층 상가주택 대360㎡ 매6.8억원(융2.7억 보9,000 포함)
3. 장덕동 3층 상가주택 대310㎡ 매10.3억원(보3.7억 월280 포함)
4. 일곡동 3층 상가주택 대250㎡ 매5.9억원(보6,000 월240 포함)

공장/토지/기타
1. 도천동 하남산단9번로 광산IC 입구 공장2동 대1,218㎡ 매12억원
2. 진도군 군내면 나리 바다조망 임야48,600㎡ 매6.6억원
3. 신가동 생산녹지 답745㎡ 매3.65억원
4. 하남동 일반상업지역 대로변 대770㎡ 매23억원
5. 광산구 도천동 자연녹지 전1,207㎡ 매2.9억원
6. 산월동 자연녹지 택지조성완료 대290㎡ 매3.3억원
7. 장성군 남면 녹진리 1종일반주거 전2,115㎡ 매2.8억원
8. 매곡동 대광로제비앙 1층 상가 주출입구코너 71㎡ 매5.2억

부동산 매물 상담 환영
010-2572-4663 홍창경
북구 문화예술회관 근처

부동산 투자의 답 제주에 있습니다
제주에서 현재 가장 HOT PLACE인 영어교육도시 및 신화역사공원 인근 부동산을 강력 추천합니다.

원룸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대 525㎡, 건물 522㎡, 방 8개 [예상연수입 85백만원] 매가 15억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대 430㎡, 건물 306㎡, 방 8개 [예상연수입 67백만원] 매가11억원

펜션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대 5,637㎡, 방 9개, 매가 14.8억 (예상연수입 1억3백만원)

전원주택
▶서귀포시 대정읍 인성리, 대 483㎡, 건물 84㎡, 매가 3.7억
▶서귀포시 대정읍 신평리, 대 406㎡, 건물 67㎡, 매가 3억 [카페, 음식점가능]

토지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임야 4,664㎡, 계획관리, 매가 26억 [전원주택지]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전 2,774㎡, 계획관리, 매가 12.5억 [다가구주택, 전원주택지]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전 3,635㎡, 계획관리, 매가 21.9억 [전원주택지]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임야 5,983㎡, 생산관리, 매가 21.7억 (전원주택지)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전 2,777㎡, 자연녹지, 매가 10.9억 (단독주택, 펜션부지)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전 4,780㎡, 계획관리, 매가 16억 [산방산탄천 인근, 펜션부지]

NAVER 올레탑공인중개사 검색

26년 은행경력의 노하우 올레탑공인중개사 기성후·기정근
서귀포시 안덕면 신화역사로 434 ☎064)792-8979

광주바이블칼리지 신입생모집

광주바이블칼리지 입학안내
1. 모집기간 : 수시모집
2. 모집인원 : 월요반, 저녁반(월, 화), 토요반 각 30명 내외
3. 구비서류 :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4. 접 수 처 : 본교 행정실
5. 등록금과 장학혜택에 관해서는 학교로 문의 바랍니다.

본교 교수진

성명	시무교회	성명	시무교회
바이블칼리지 신학연구과 교수			
이환수 학장	성도교회	변 한 목사	풍암전원교회
최시채 처장	영산제일교회	임우광 목사	미국 텍사스 포트워트 한인장로교회
이신한 목사	필리핀선교사	김정민 목사	[illegible]
황영준 목사	광주동산교회	고경태 목사	주님의교회
박성천 목사	광주바이블칼리지	진장환 목사	[illegible]
박용민 목사	광주예림교회	김범택 목사	광주은평교회
이상덕 목사	광주새한교회	박성수 목사	광주창조교회
이원재 목사	광주무등교회	신동구 목사	주님의교회
김문일 교수	전남대학교	양정순 목사	주사랑교회
바이블칼리지 성경대학원 교수			
고경태 목사	주님의 교회	최시채 목사	영산제일교회
임우광 목사	미국 텍사스 포트워트 한인장로교회		

광주바이블칼리지 소개
- 개혁주의 보수교단에 속한 유명교수들의 수준높은 강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성서총회 인준신학교로 졸업후 목사안수제도 (여목사제도)
- 오랜 경력의 교수들이 담당하는 개혁신학 강의와 구속사적인 풍성한 가르침
- 목회사역과 현장중심의 실제적인 수업

석박사 학위과정
- 미국 캘리포니아 디퍼런스 대학교와 학사교류 협약 (MOU)
- 석사과정 : 목회학 석사(M.Div) = 5학기 (30학점)
- 박사과정 : 목회학 박사(D.min) = 6학기 (36학점)

광주바이블칼리지 광주국제기독학교
전남 담양군 무정면 중리도동길 42-34(성도리 산 72)
☎061-381-0000